

제1회 송건호언론상 자료집

시상식

일시: 2002년 12월 6일 (금) 오후 6:30

장소: 서울 한국언론회관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청암언론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제1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 정 경 희

- ◆ 1932년 12월 24일 생
- ◆ 서울대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졸업
- ◆ 1958년 한국일보 입사
- ◆ 1969년 동사 외신부장
- ◆ 1971년 동사 문화부장
- ◆ 1978년 동사 논설위원
- ◆ 1992년 제3회 위암언론상 수상
- ◆ 1993년 동사 정년 퇴직
- ◆ 2002년 "미디어 오늘" 『곰은 소리』 집필
- ◆ 2002년 "한겨레신문" 『죽비소리』 집필

축 사 - 강만길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오늘 이 자리는 '약속의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청암 송건호 선생님의 민주·민족·독립언론의 정신을 되새기고 앞으로도 그 정신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암선생께서 이 세상과 우리들의 곁을 떠난 지 이제 일년입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 남은 우리가 청암선생의 정신과 살아 생전 그 분이 남겼던 모든 것을 집대성한 『청암전집』을 펴내게 되어 다행히도 그분 앞에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나날이 청암선생의 정신이 훼손되어 가는 언론현실에서 곳곳이 그 정신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후배 언론인에게 청암선생의 이름으로 상을 수여하는 자리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이 자리는 살아남은 자들이 고인에게 드리는 뜻 깊은 자리임과 동시에 아픈 자리이기도 합니다.

반민주적, 반민족적 언론이 거대한 권력으로 행세하고 있고, 선생께서 그토록 극복하고자 했던 분단시대는 그 거대 언론권력들로 인해 지금도 단단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생께서 일생을 통해 온 몸으로 보여주셨던 실천적 지성의 모습은, 선생이 가고 없는 지금 시대의 지식인,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그 흔적만이 남아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약속의 자리'여야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들은 다시 한번 청암선생을 떠올리게 되고, 청암선생의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청암 송건호 선생님께서 작년 이 맘 때 우리들 곁을 떠난 직후부터 준비된 『청암전집』이 '청암전집 간행위원회'의 1년간의 노력으로 20권에 달하는 장대한 모습으로 오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전집에는 청암선생께서 살아 생전 남겼던 주옥 같은 글들을 담아 내었습니다. 후배 언론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와 통일세상을 바라는 모든 후학들의 좌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언론인들 중 청암선생의 '민주·민족·독립언론' 정신을 온몸으로 구현하고 있는 정경희선생께 제1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언론계의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청암선생의 정신을 쫓는 많은 후배들이 있어 선정에 애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디 제2회 때는 더욱 더 많은 후배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 사 - 최학래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선생님 영전에 바친 다짐을 되새기며

고 청암 송건호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지 벌써 한 해가 다 되었습니다. 지난 해 12월말 우리는 아득한 슬픔 속에서도 선생님의 유업을 이어 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선생님을 떠나 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선생님의 합자를 딴 언론상을 만들어 첫 번째 시상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생전에 집필하신 옥고들을 모아 <송건호 전집>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남아 있는 우리가 '송건호 언론상' 을 제정한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고 봅니다. 한 평생 오직 언론의 정도만을 걸어 오신 선생님의 삶을 우러러 본보기로 삼고자 함입니다. 선생님의 언론 외길 40년은 이 땅의 언론자유 운동의 역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직필과 예봉으로 권력과 자존의 오만함을 통렬히 비판하시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이처럼 언론계의 표상이셨을 뿐 아니라, 또 이 시대의 큰 스승이시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술하신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한국 현대사론> 등 십 수 권의 저서들은 이 민족에게 분단극복과 평화통일의 길을 제시한 역작이었습니다.

저는 송건호 선생님의 삶에 비취 볼 때, 정경희 선생님께서 제1회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하시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경희 선생님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오로지 언론인으로 사시면서 진실보도와 공명정대한 논평을 통해 언론인의 양심을 지켜 오셨습니다.

정경희 선생님의 올곧은 '기자 정신' 에서 우리는 송건호 선생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고대사 연구에 열정을 갖고 <한국 고대사회 문화 연구>라는 저서를 내신 정경희 선생님의 학자적 자세 역시 송건호 선생님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처럼 늘 연구하고 성찰하는 정경희 선생님의 모습은 후배 언론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희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송건호 언론상 제정과 <송건호 전집> 간행을 위해 애쓰신 송건호 선생님의 유가족 여러분과 강만길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이상희 한성대 이사장님을 비롯한 송건호 언론상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 - 조성숙 동아투위 위원장

언론인의 정도를 일깨워 주신 두 분을 기리며

송건호 언론상의 첫 수상을 하시게 된 정경희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송건호 선생님의 사상을 집대성한 전집의 출간을 또한 축하합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청암 송건호 선생님을 떠나 보낸 슬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선생님의 음성과 가르침이 우리들의 가슴에 생생히 살아있는 지금, 이처럼 성대한 추모사업을 벌이게 됨에 참언론인으로서 외길을 걸어오신 선생님의 삶과 고결한 인품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언론정의를 위해 권력의 회유를 외면하시고, 동아일보 기자 대량해직사태에 편집국장직을 박차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오신 강직하고도 청렴한 선생님의 지사다운 품모는 원칙과 정도가 무너져 가는 이 어지러운 시대에 더욱 더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정경희 선생님은 어쩌면 이렇게 송선생님을 닮은 분이 계실까 하고 놀랄 정도로 40 평생을 올곧은 참언론인의 길을 걸어 오셨고, '기자는 사회과학도가 되어야 한다'는 송선생님의 지론처럼 학문 연구에도 정진하시어 전문기자로서 언론계의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송건호언론상의 첫 수상자로서 매우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 참언론 선배님의 삶은 언론인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권력과 돈, 허망한 명예에 한눈 팔지 않고 사회의 마지막 공복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며, 진실보도와 공명정대한 논평을 위해 양심과 용기가 있어야 하며, 역사의 증인·역사의 기록자로서의 통찰력과 사명감을 가져야 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언론인자세와 정신이 응축된 송건호전집은 참언론의 교과서로서, 현대사 연구의 학문적 자료로서, 민족의 장래와 올바른 삶의 길잡이로서 귀중한 민족적·사회적 교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 언론계의 표상이며 큰 스승이신 송건호선생님을 삶의 본보기로 삼아 높이 기리고, 선생님의 깊은 사상과 철학을 널리 알리며 그 정신을 이어가는 일은 남아 있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행사는 그 첫출발로써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 이 사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을 합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오늘의 이 행사를 마련하신 송건호선생님의 유가족 여러분과 청암언론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그리고 전집출판에 심혈을 기울여 온 한길사의 노고를 높이 치하 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신 정경희 선생님 더욱 정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상 소감 - 정 경 희

어렵지만 지켜야 할 길

뜻밖에 우리 언론계의 큰 별인 청암 송건호 선생의 이름으로 된 상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송건호 선생은 44년 전인 1958년 제가 한국일보에 수습기자로 입사하면서 뵈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생은 외신부 데스크를 맡아 국제 문제에 대한 분석 논설을 쓰셨고, 저는 편집부에서 국제면을 편집하게 되어 선생과 자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온화하면서도 치밀하고 학구적인 선비이셨습니다.

특별히 이렇다 할 일을 이룩하지 못한 제가 선생의 이름으로 영광된 상을 받으리라고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언론은 세계의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압도적 과점 지배하에 있습니다. 과점 신문들이 지배하는 이 나라의 언론은 사회적 공기로써 지켜야 될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보도·논평의 사명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통합의 통로이자 광장이 되어야 할 언론은 거꾸로 나라를 증오와 권력 지상주의가 판치는 저질의 싸움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궁극적으로 사회적 평화까지 위협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언론은 권력지상주의와 파벌주의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옳고 그른 것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기사와 논설을 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일찍이 박정희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위해 저항의 길을 택했던 선생의 이름으로 된 상은 저 개인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위기를 극복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아 이 나라 언론과 언론종사자들에게 보내는 선생의 메시지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예언자의 눈으로 현실을 사심 없이 바라보고, 권력이나 돈이나 허망한 명예에 한눈을 팔아선 안 되는 사회의 최종적 공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언론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던 선생의 길이요, 소리 없이 남기신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았던 선생처럼 언론의 정도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언론과 한국 민주주의가 지향하고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